

거칠것 없는 현대백면세점, 두타매장 인수... '규모의 경제'

두산과 매장 임대 계약 체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연 100억
향후 특허신청 결과 따라 변동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산과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영역확장에 나섰다. 점포 확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산 면세사업 부문 중 부동산과 유형자산의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두산의 476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143억원 규모의 유형자산을 취득하기로 했다.

두산 면세사업 인수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장 취득 및 운영'이라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취득해 동대문에서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취득예정일은 내년 2월 28일이며 계약 조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으로 연간 100억원을 지불한다. 다만 이번 취득은 조건부 사항으로 향후 시내면세점 운영 특허신청 결과에 따라 취득 여부

가 변동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한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협약 이행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면세점 빅3인 롯데·신라·신세계가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에 불참의사를 내비치면서 사실상 사업권은 확정된 상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무역센터점에 시내면세점 1호점을 열고 영업중이다. 매출은 늘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영업손실 또한 누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6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3분기 면세부문 영업손실은 1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80.0% 늘었다. 그럼에도 두타면세점 자리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실현'에 있다. 면세점 규모가 작으면 유명 해외 브랜드를 유치할 수 없지만, 규모가 클수록 브랜드 유치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브랜드 파워'가 있는 면세점에 고객이 몰리는 것이다. 브랜드 유치 뿐 아니라 규모가 크

면 대량의 상품을 주문해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몸집을 키워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매 협상력을 늘려야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두타면세점 자리로 신규 면세점 사업권을 확보하면 기존보다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고 교섭력도 끌어올릴 수 있어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지난달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두타면세점은 3년간 총 6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2016년 477억원, 2017년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018년에야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보고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직장인 절반 "주 52시간제 이후 야근 줄었다" "주 52시간제 1년 더 연기... 탄력근로제 검토"

잡코리아 기업 설문조사

"야근 늘었다" 응답 7.7%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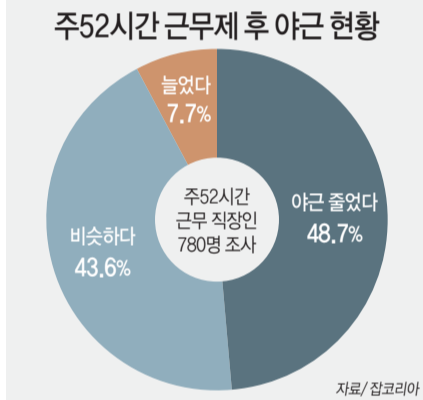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야근'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780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요즘 야근을 자주 합니까?'라는 질문에 '가끔 한다(42.9%)'거나 '거의 안 한다(41.9%)'는 응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야근을 자주 한다'는 응답자는 15.2%에 그쳤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야근 빈도는 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야근이 줄었다'는 응답자가 48.7%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전과 비슷하다(43.6%)'는 응답자가 많았고, '야근이 늘었다'는 응답자는 7.7%로 소수에 그쳤다.



야근을 하는 이유는 '일이 많아 다하지 못했다(53.6%)'나 '갑자기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업무 때문에(50.1%)' 야근을 한다는 직장인이 각각 과반수 이상의 응답률(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는 ▲본연의 업무보다 보고/관리하는 업무가 많아서(16.2%) ▲업무 특성상 야근이 불가피해서(해외무역 등_15.1%) ▲퇴근시간이 임박했을 때 업무 지시를 받아서(14.5%) ▲야근 수당을 받기 위해서(13.6%) 순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

중소 주 52시간제 입법보안 입장 발표

보안 없이 근로시간 단축시 큰 충격 현실 감안한 제도보안 반드시 선행

범중소기업계가 50인 이상, 299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시행을 1년 유예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로 번 시간 동안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관련 제도를 현장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국회에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 입법보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는 입장문에서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돼 있어 특단의 보안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중소기업들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감안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52시간제 입법 보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회장(왼쪽 2번째) 등 단체장들이 회견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도보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시행시기 1년 유예 ▲탄력근로제 요건과 절차 대폭 완화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주52시간제의 근본해법은 노사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라면서 "불규칙적인 주문과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합의시 추가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적

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주' 단위로 하고 있다보니 '연·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일본에 비해 뻣뻣하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도 주52시간제를 꼭 지킬테니 1년만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라며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봐도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하기엔 힘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담양군 공고 제 2019 - 11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담양군 고서면 보춘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1. 14

담양군

사업명	위치	면적(㎡)	비고
담양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고서면 보춘리 일원	885,731	

1. 공람기간 : 2019. 11. 14 - 2019. 11. 27.(14일간)
2. 공람장소 :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고서면사무소
3.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4.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사유 :
○ 담양 고서 보춘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로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고자 함.
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 공람장소 별도비치
※ 권입토지조서와 도면이 불일치 할 경우 도면이 우선시 됨
7. 기타사항 :
○ 관련도서는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고서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들에게 보여드리오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투자유치과(☎380-3136, 3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선호하는 근무지 1위 강남 일대... 2위 시청·광화문

사람인 성인남녀 설문조사

지역 선호 이유로 교통편 꼽아
직장 선택 시 86% 지역에 영향

성인남녀가 서울에서 가장 선호하는 근무지는 강남 일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사람이인 성인남녀 2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내 선호 근무지에 대한 응답자(복수응답) 41.6%가 '강남 일대'를 선택했다.

이어 '시청/광화문'(25.1%), '여의도'(24.6%), '구로/가산 디지털단

지'(21.5%), '잠실/송파'(21.1%), '홍대/신촌'(16.8%), '상암 DMC'(12.3%)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58.6%(복수응답)가 '집에서 교통편이 가장 좋기 때문'을 꼽았다. 이어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서'(33.5%), '중심지라서'(26.4%),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24.7%), '비즈니스 미팅 등이 동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서'(12.7%) 등을 들었다.

명당으로 생각하는 근무지 역시 대다수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하

철역 인근'(80.2%, 복수응답)을 선택해 편리한 출퇴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장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36.1%), '도로 환경 등 차량이동이 용이한 곳'(31.4%), '인근에 맛집이 많은 곳'(12.8%), '녹지공간이 잘 구성된 공원 인근'(10%), '전망이 좋은 곳'(5.4%) 등의 순이었다.

상당수의 성인남녀(86.7%)는 직장 선택 시 근무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역이 입사 또는 이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복 합격 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도'(5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최종 결정을 좌우할 정도'도 30.7%나 됐다. 반면,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직장인(1,272명)의 절반 정도(53.2%)가 현재 선호하는 근무지역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응답했다.

또 현재 선호 근무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직장인(595명)의 경우, 대다수인 83.4%가 추후 선호 근무지역으로 이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